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9년 5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아동의 권리



인터뷰 :

인천시아동복지협회 하성도 회장과의 만남



I/D/I/소/식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우리 연구원(원장 어윤
덕)은 인천내에서 진행
되는 도시개발 및 정비사
업의...

행/사/정/보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행사] '제5차 한반도
비전 전문가' 라운드테이
블 개최(5.25)...

Zoom INcheon



연수구-전통과 미래
가 공존하는 교육, 문
화, 예술 중심도시
연수구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서쪽으
로 32km떨어진 해안
에 위치하...

도시동향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Head Start(미국)와
Sure Start(영국)
아동이 빈곤하다는 것
은 아동의 신체와 정
신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자원...

IDI연구



인천광역시 어린이보
호구역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 어린이보
호구역의 문제점을 진
단하고, 어린이 교통
사고 예방에 ...

인천지표

연도	OECD 평균	1위	2위	3위
'05년	5.6명	멕시코 (13.6명)	미국 (9.2명)	한국 (8.7명)
'91-' '95년	10.5명	한국 (25.6명)	멕시코 (19.8명)	포르투갈 (17.8명)

아동 안전과 인권

통계청이 금년 5월 6
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OECD
국가...



아동의 권리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조민선관장

얼마전 인천의 모 초등학교 2학년 교사가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고 시험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이를 체벌하여 전치 3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이의 버릇을 고치고,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훈육의 방법으로 사랑의 매를 들었다고 선생님은 말하였다. 하지만 매 맞은 아이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였을까?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십대 맞으며 아파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같은 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3살배기 아이만 남겨둔채 가출한 부모, 이혼하면서 서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겠다고 거리에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간 비정한 부모, 알콜중독과 폭력으로 매일밤 괴롭히는 부모가 싫어 차라리 죽는게 소원이라는 아이 -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8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8년간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는 약 2.3배,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총 566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되었고, 그중 방임 37%, 정서학대 36%, 신체학대 22%, 성학대 6%, 유기 2%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과 빈곤이 급증하면서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생계형 방임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아동학대에방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지만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잠재적인 학대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동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보살핌을 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 사회와 국가, 부모, 어른은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학대, 방임, 실종, 유기, 폭력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빈곤이나 학대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들을 차별하거나 성인의 부속물처럼 취급하며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유엔총회에서는 1989년 11월 20일 아동의 생존과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교정해 놓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 관련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2009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3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등의 차별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아동의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 학대받고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참여의 권리, 문화적·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협약의 이행상황을 비준후 2년, 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모니터링 받아야 하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12월에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수준은 보호권은 점차 진전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유권과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과 지원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침해에 대한 감시 기능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아직까지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부족, 아동권리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자료부족, 전문인력과 지역네트워크

부족, 권리침해 상담·접수 및 처리권한 시스템 미흡 등의 어려움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동권리 증진 및 옹호사업을 펼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아동의 권리증진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기에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때도 이를 상담하려는 의지가 낮고, 연령 차별적인 문화속에서 부모, 교사 등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에 우선적으로 권리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캠페인 및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침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방, 전화, 사이버상담 등을 활성화시키고, 전문적으로 아동권리 침해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상담뿐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내 아동·청소년 문제를 개인이나 그 가족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사회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지역주민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내 관련기관들간의 접촉이나 지원을 확대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 및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뿐아니라 부모,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할것이다.

아동의 권리는 어느 한 사람, 부모, 가정, 사회,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의 책임으로 인권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할 때 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동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다. 또한 아동 스스로에게도 주어진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며 권리주체자로서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학대와 폭력, 범죄 속에서 고통받지 않고 소중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으며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진정으로 아동들이 살기좋은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8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8년간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는 약 2.3배,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총 566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되었고, 그중 방임 37%, 정서학대 36%, 신체학대 22%, 성학대 6%, 유기 2%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과 빈곤이 급증하면서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조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생계형 방임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09년 5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시아동복지협회 하성도 회장과과의 만남

‘인천의 미래, 행복한 아이’를 지향하며 통합적인 아동복지 실현할 터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트리에' 34호에서는 인천시 아동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보호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인천시아동복지협회 하성도 회장(신명보육원장)을 만나 인천시 아동복지분야의 비전과 문제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천시아동복지협회
하성도 회장



Q 현재 회장직을 맡고 계신 인천시아동복지협회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인천의 아동복지시설은 1894년 8월18일 인천시 중구 답동에서 제물포고아원(현재, 해성보육원)을 시작으로 6.25동란이후 부모와 가족을 잃은 아동들을 양육 보호하기 위하여 30여개의 고아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1952년 부산새들원에서 당시 사회부(현 보건복지가족부)의 주관으로 고아원을

설립한 사회사업가들이 모여 한국사회사업연합회를 창립하게 되었으며 인천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해 아동복지의 시작과 함께 경기도사회사업연합회로 발족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81년 6월19일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행정구역상 분리, 당시 인천에 있던 영아시설 2개소, 육아시설 7개소, 자립지원시설1개소, 직업보도시설 2개소로 총 12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을 회원으로 협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동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보호아동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아동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인천시아동복지시설연합회에서 인천시아동복지연합회, 인천시아동복지협회로 발전해오면서 부모가 없는 요보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에서 보다 발전하여 인천지역 보호아동,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빈곤가정, 학대아동 그리고 일반가정의 아동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미래, 행복한 아이”를 지향하며 인천의 아동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아동복지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관련 법안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법안이 전면적인 개정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순한 법 개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서 그간 관련 부처가 달라서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정책이나 관리체계가 일원화 된다는 것이 아동·청소년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청회나 간담회 등에 참석해서 아동복지협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라는 대로 재원이 얼마나 뒷받침 될 수 있느냐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법을 정비하는 것까지는 환영할

일하지만 월경부터 사립할 때까지 국가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이 미숙하다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이 정비되고 행정체계가 정비되는 일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Q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이 높아서 요보호 아동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아동보호체계가 입양이나 가정위탁, 그룹홈 등 다양화되고 있지만 시설보호 역시 여전히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위탁이나 입양, 그룹홈에 의한 아동보호체계 역시 전문가들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아동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정해체 자체만으로도 큰 쇼크임을 기억해야 하고, 이중에서도 심각한 정도를 구분하여 일반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아이들은 입양이나 가정위탁으로 보내고 심리적인 장애가 있어서 전문적인 보호나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은 시설로 보내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동복지센터입니다. 저점처럼 활용할 수 있는 센터가 마련되면 아동들의 심리치료를 병행·확대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서 보육원 아이들만이 아닌 지역의 아동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 양육시설의 단순한 보호개념에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차원, 나아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센터 건립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후원자, 일반시민들께서 아직도 아동복지시설을 예전의 고아원 개념으로 떠올리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화들이 홍보를 못한 탓도 있지만 드라마나 영화 등 매스컴으로 통해 비쳐지는 5~60년대 전성 고아 이미지들 때문에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아동복지시설들이 환경적 변화뿐 아니라 역할면에서도 가족회복 기능까지 확대시켜 간다면 이러한 고정된 이미지는 자연스레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아동복지시설에서 오랜 기간 몸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전의 아동복지시설들은 전형적인 보육원의 모습이었습니다. 환경도 기숙사형으로 공동세면장,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이어서 특히 겨울에 화장실까지 가려면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나가야 하니까 감기에 걸리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신명보육원의 경우에는 아파트형으로 전환하여서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환경적인 변화는 물론, 종사하는 인력도 아이들 전체인원은 68명인데 아이들을 케어하는 생활지도원이 2배가 돼서 12명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도 원장, 총무, 영양사가 전부였으나 현재는 사회복지사 2명, 상담사, 간호사 등 전문화된 10명이 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아이들을 위한 거주환경이나 인력 구성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셈입니다. 특히 아동서비스 인력은 2002년 이후에 2교대가 시행되면서 인력이 두배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도 타 시도에 없는 시설관리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대체인력지원과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자립담당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최근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신명보육원을 예로 들어본다면 아동복지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작년 5월에 ISO2001인증을 받은 점을 획기적인 변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행정체계를 다듬으면서 매뉴얼화에 노력해왔으나 부딪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SO 인증을 통해서 전문화된 인증을 받자고 결의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1년여간 준비하여 2008년 5월에 아동복지에 대한 설계개발·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인증을 받아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육상담, 경제관리 등의 효율적인 지침 99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큰 자부심이자 획기적인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Q 인천의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협회장으로서 앞서 얘기한 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치료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중점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족과 분리되면서 정서적인 불안과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문제들이 표면화돼서 드러난 뒤에 치료를 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효과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에 들어오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듯이 심리적인 문제점을 찾아 아이들에 대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적절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인천시민들에게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시민들의 인식변화는 협회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면서도 정책적 관심이 매우 부족합니다. 제 입장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기성세대들이 약자를 위해 특히 아동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하고 발전에 애쓰느냐를 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말로만 미래의 꿈, 희망이라고 말하지 말고 인천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인천도 희망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교육적인 투자를 아낌없이 해주고, 아동수당제도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개인 가정의 환경적 차이로 인해서 아동의 재능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아이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수 있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다져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대답 : 권현진(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원)**

■ **기록 : 장순지(시정연구협력센터)**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프리에' 34호에서는 인천시 아동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보호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인천시 아동복지협회 하성도 회장(신명보육원장)을 만나 인천시 아동복지분야의 비전과 문제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9년 5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최신사례로 살펴보는 도시개발/정비사업 노하우’ 주제로 총 6강좌 실시

우리 연구원(원장 어윤덕)은 인천내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시, 유관기관 및 기업 실무담당자들의 전문지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인천시와 함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의 실무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우리 연구원 대강당에서 지난 5월 7, 12, 14, 19, 21, 26일에 거쳐, 총 6강좌(각 강좌당 2시간)로 진행됐으며 ‘최신사례로 살펴보는 도시개발/정비사업 노하우’를 주제로 공무원 및 유관기관, 일반시민(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일정

특강일	강사명	강사
5월7일(목) (15:00~17:00)	도시재생사업 동향과 사업방식 비교	안경호 부사장 (DA그룹)
5월12일(화) (15:00~17:00)	연관도시개발 PF사업 사례연구	김영삼 부장 (한국토지공사 도시정보팀)
5월14일(목) (15:00~17:00)	도시재생사업의 분쟁사례와 판례분석	박성호 변호사 (법무법인 민음)
5월19일(화) (15:00~17:00)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익사업 보상제도	채현서 사장 (충북개발공사)
5월21일(목) (15:00~17:00)	부동산 개발금융 및 자금조달 기법	강승일 실장 (코원크 자산신탁)
5월26일(화) (15:00~17:00)	도시개발/재개발을 위한 문화컨텐츠 개발	전원재 회장 (주)키라 에셋

■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남무고 연구구청장 초청 연찬회

우리 연구원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제4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의 강사로 남무고 연구구청장을 초청해 강연 및 연찬회를 가졌다. 남무고 연구구청장은 강연에 앞서 연구구의 주요 사업과 구정 현안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영상물을 제공했다. 남 구청장은 이어서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구’를 슬로건으로 하는 2009년의 구정운영 방향과 전략과제 및 역점시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 추진과 전국 최고의 교육명문 도시 건설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인선 복선전철 역사 이전과 구민편의시설 확충 등을 현안사업으로 설명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와 육련재래시장의 현대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연구원 연구진들은 원 인재 특화가로 조성 및 주거유형 다양화 방안, 연구구 환상형 보행 탐방로 구축과 연구구 특성에 맞는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방안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우리 연구원(원장 어윤덕)은 인천내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의 담당자 또는 관의 전문지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인천시와 함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의 실무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우리 연구원 대강당에서 지난 5월 7, 12, 14, 19, 21, 26일에 거쳐, 100분 특강, 총 6강좌로 진행됐으며 ‘최신사례로 살펴보는 도시개발/정비사업 노하우’를 주제로 공무원 및 유관기관, 일반시민(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포럼] '서해 유류유출사고 환경대책' 제11차 포럼 개최(5.25):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2-380-7777

◆[행사] '제5차 한반도 비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5.25):국토연구원 031-380-0114

◆[행사] 세계평화의 종공원 준공 기념 통일정책연구협의회·화천군·강원일보 공동학술회의 개최(5.26): 통일연구원 02-900-4300

◆[심포지움] 제3차 한·중 국제교통심포지움 개최(5.26):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심포지움]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개최(5.27-28):한국보건사회연구원 02-380-8104

◆[행사] '위험화물 국제운송 안전정책 세미나'개최(5.28):한국교통연구원 031-910

◆[포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여성과 발전' 포럼 개최(5.28):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

◆[행사] '제5차 한반도 비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5.25):국토연구원 031-380-0114◆[행사] 세계평화의 종공원 준공 기념 통일정책연구협의회·화천군·강원일보 공동학술회의 개최(5.26):통일연구원 02-900-4300◆[심포지움] 제3차 한·중 국제교통심포지움 개최(5.26):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행사] '위험화물 국제운송 안전정책 세미나'개최(5.28):한국교통연구원 031-910◆[심포지움]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개최(5.27-28):한국보건사회연구원 02-380-8104◆[포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여성과 발전' 포럼 개최(5.28):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포럼] '서해 유류유출사고 환경대책' 제11차 포럼 개최(5.25):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2-380-7777

연수구-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교육, 문화, 예술 중심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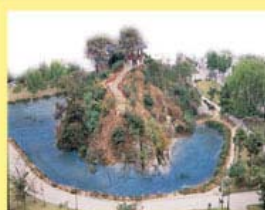
연수구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교육, 문화, 예술 중심도시

연수구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서쪽으로 32km떨어진 해안에 위치하여 33.76km²의 넓이에 27만명의 인구(95,204세대)가 모여 사는 역동적인 도시로 중국진출이 활발했던 백제 초기 중국 사신들이 머물던 고유한 역사적 전통이 살아 숨쉬는 “능허대”를 감싸 안고 조성되었으며 낙조의 맛을 한껏 자랑하는 해안선과 인천의 명산인 청량산, 문학산을 경계로 현대적 도시계획에 의하여 조성된 전형적인 주거도시 지역으로 자연산림·녹지공간·내단위 아파트가 조화된 전원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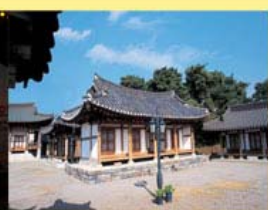
역사의 향기 가득한 하루나들이 코스



능허대



능허대 축제



원인재

능허대

어원은 “건널 능(凌)자에 허(虛)자로 하늘을 가르고 날아 간다”는 뜻의 복을 비는 뜻이다. 백제의 근초고왕때부터 100여년간 사신들이 중국을 왕래할 때 출발했던 나룻터가 있던 곳. 1990년 인천시 지정기념물 제8호로 지정돼 백제시대 전승유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정자 바로 아래 높이 7.5m규모의 계단식 인공폭포를 설치, 해송과 진달래, 개나리 등 5천여 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어 시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능허대 축제

능허대축제는 매년 10월 능허대공원과 옥련동 일대에서 펼쳐진다. 개막을 알리는 웅장한 사신 행렬과 사신 맞이 퍼포먼스는 역사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이틀에 걸쳐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센터 체험관을 운영하고 널뛰기, 떡메치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와 우리고유의 운동이 씨름대회 등을 개최하여 인천의 대표축제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원인재

단아하고 소박한 한옥의 체취가 그대로 살아 있는 곳 인천시 문화재 자료 제5호인 원인재는 인천씨씨의 시조인 이허겸의 제실로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후손들의 뿌리 교육을 위해 만든 공간이다. 이곳은 옛 정취가 그윽히 배어나는 곳으로 원인재 외에도 돈인재, 승휴당, 율수실, 명인사, 이인로 문학비 등이 있어 휴식이기보다 휴교로 활용 가능하다.



송도유원지

인천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곳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다. 봄 소풍때 친구들과 함께 즐겼던 대관람차나 회전목마,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인 오리배 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인공해수욕장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썰매장, 레프팅장, 보트장, 족구장과 축구장을 갖췄다. 여름에는 송도워터파크에서 스릴 넘치는 슬라이드를 즐길 수 있고 주말에는 한지만들기, 천연비누만들기, 북아트만들기 등 학습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서 전세를 역전시킨 맥아더장군의 군사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청량산 자락에 위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인천대교도 볼 수 있어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 야외공연장과 전망대 등은 물론 남북한 군사장비와 생활모습, 당시 유물과 기록 등도 볼 수 있다.

인천시립박물관

국내최초의 공립박물관. 1946년 자유공원 기슭에 문을 열었으나 1990년 현재 위치로 위치를 옮기면서 현대식으로 단장했다. 200여석의 대강당과 기획전시실, 도서관 등으로 갖춰졌다. 특히 고미술품 4천30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역사실에는 선사시대부터 광복이전까지 주요 유적과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을 테마로 클래식, 전통국악, 퓨전국악, 등 다양한 공연들이 무료로 선보이고 있다.

송도의 특색(꽃게) 음식거리



송도 꽃게거리

송도를 들어서면 꽃게를 주 메뉴로 하는 음식점 20여 곳이 모여 있는 거리가 눈에 띈다. 20여년전부터 송도 앞바다에서 잡히는 꽃게로 요리하는 집들이 모여 형성된 특색거리로, 제철인 4월부터 6월까지 송도유원지 앞에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이르는 길 까지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꽃게 요리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주제가 있는 도심속의 자연공원



① 용담공원 분수 ② 아암도 해안공원 ③ 선학어린이공원
④ 배수어린이공원 ⑤ 문화공원 전경

연수구는 공원과 녹지가 전체면적의 40%로 구성되어 있는 친환경 도시로서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37개소, 체육공원, 자연공원, 아암도 해안공원 등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공원들이야말로 연수구의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원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연수구에서는 풍요롭고 정감이 넘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어느 곳에서나 자연을 직접 느끼고 접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자, 관내 모든 공원마다 주제를 가진 공원으로 재정비하여, 자연과 현대의 맛이 조화를 이뤄 공존하는 도심속의 자연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연수구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서쪽으로 32km떨어진 해안에 위치하여 33.76km²의 넓이에 27만명의 인구(95,204세대)가 모여 사는 역동적인 도시로 중국진출이 활발

했던 백제 초기 중국 사신들이 머물던 고유한 역사적 전통이 살아 숨쉬는 “능허대”를 감싸 안고 조성되었으며 낙조의 멋을 한껏 자랑하는 해안선과 인천의 명산인 청량산, 문학산을 경계로 현대적 도시계획에 의하여 조성된 전형적인 주거도시 지역으로 자연산림, 녹지공간, 대단위 아파트가 조화된 전원도시다.



아동이 빈곤하다는 것은 아동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거나 기회로부터 배제됨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빈곤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급식, 의료, 주거, 교육영역에 이르는 포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Start는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각 국가별 지원사업의 일반적인 명칭이다. 미국은 Head Start, 영국은 Sure Start, 캐나다 Fair Start이며 우리나라는 We Start, 희망스타트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Head Start와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영국의 Sure Start를 살펴보겠다.

■ 미국의 Head Start

Head Start는 아동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을 교육의 결핍에서 찾고 빈곤아동의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기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중심 지원사업이다.

1964년에 제정된 경제기회법(Economy Opportunity)이 사업시행을 위한 최초의 법적근거가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저소득 가족의 영유아에게 포괄적 의미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주요사업내용은 1) 장애 : 장애아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장애특성에 따라 교육과 건강·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 2) 교육 : 학교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취학준비를 지원, 3) 건강 :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평가와 건강검진 실시, 구강·위생·영양의 생활습관을 지도, 안전교육 실시의 세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보건·복지·교육을 연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아동 뿐 아니라 부모역할 지원과 재교육 및 직업훈련을 포함한 2세대 사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Head Start의 대상은 저소득 가정의 3-4세 아동들에서 최근 0-5세로 확대되었으며, 최초시행된 1965년이래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2,300만 아동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965년 56만1천명의 아동들이 수혜를 받기시작하여 2006년에는 90만9천명의 아동에게 혜택이 주어졌다. 특히 2001년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전체 빈곤아동 136만명 가운데 80만명 이상이 Head Start에 참여하여 참여율이 빈곤아동의 60%에 이른다.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자 하는 Head Start의 실행노력은 사업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여러 연구들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아동의 교육적 측면과 성장발달적 측면의 성과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아동양육기술의 향상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 주어진다. 특히 부모들의 일부는 Head Start 직원으로 고용되어(1992년 기준으로 전체직원의 35%가 참여아동의 부모였음)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밖에도 Head Start가 가정, 학교, 도서관, 지역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기반하는 것, 통합된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활발한 실행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 영국의 Sure Start

Sure Start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빈곤층 아동이 인생을 어려서부터 확실하게(Sure) 출발하도록(Start) 돕는다는 의미의 정부주도 정책으로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빈곤지역의 아동들이 불평등한 출발을 하지 않도록 일반아동과 같은 수준의 보육·보건·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빈곤아동 수를 0명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영국정부의 11개 관련부처들이 합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다. '모든 아동에게는 공정한 출발을, 부모에게는 일할 수 있는 의지를, 지역공동체에게는 안정을'이라는 구호 하에 하위 20% 이하의 계층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시 하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빈곤 아동을 극복할 수 있는

세금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0~4세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빈곤 아동을 그대로 영시할 경우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출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이를 미리 투입한다는 논리적 근거하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1998년 -2003년간 약 19억 파운드(약 3조8천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였다. 2004년 현재 Sure Start는 524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자원조직이다. 또한 지역의 Sure Start센터는 보육시설, 영재센터, 학교, 보건소 등의 기존의 지역사회시설을 변경한 경우가 많다. 특히 Sure Start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저소득 지역 아동의 교육뿐 아니라, 부모의 취업활동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위의 Head Start에서도 나타나듯이 Sure Start에서도 부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궁극적 해결인 빈곤 탈출을 위하여 부모에 대한 근로연계가 주요한 지원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자료 김미숙 외 5인(2007),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승준(2003), "교육복지투자우선지구 선정에 관한 연구", 『하계학술대회21C 거버넌스시대의 한국행정학과 정책학』 한국행정학회.



아동이 빈곤하다는 것은 아동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거나 기회로부터 배제됨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빈곤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급식, 의료, 주거, 교육영역에 이르는 포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Start는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각 국가별 지원사업의 일반적인 명칭이다. 미국은 Head Start, 영국은 Sure Start, 캐나다는 Fair Start이며 우리나라는 We Start, 희망스타트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Head Start와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영국의 Sure Start를 살펴보겠다.

인천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인천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문제점과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어린이 통학로의 시설물 현황 조사 분석, 선진 외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의 검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방안 등을 연구 범위로 하였다.

■ 인천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실태

○운전자의 77.7%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통행 제한속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운전자는 20%에도 미치지 않았다.

○조사에 응한 120개 학교 중 전체의 50.0%인 60개교만이 연석과 방호울타리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고, 나머지 50.0%는 연석만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보도와 차도가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장들 중 자신이 관리하는 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학교장이 전체의 10.8%나 된다.

○현장 조사의 대상이 된 47개 통학로 중 구간선도로(차로 수 4~8차로)에 해당하는 도로가 17개소(36.2%), 보조간선도로(차로 수 2~4차로)에 해당하는 도로가 8개소(17.0%)로 간선도로 급에 해당하는 도로가 무려 전체 통학로의 절반이 넘는 25개소(53.3%)나 된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보차분리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비교적 가로 정비가 잘 된 신도심의 보차분리 수준이 구도심보다 높다.

○통학로의 보차분리 형태를 도로 위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구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집분산도로는 모든 통학로에서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면도로는 전체 통학로의 70%가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전체 통학로의 83%가 주정차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정차금지가 실시 중인 통학로의 약 36%에 해당하는 통학로에서는 주정차 위반이 일어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 대상 통학로의 27.7%인 13개소만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하였고, 나머지 72.3%(34개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 외에는 속도를 규제하는 표지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정문과 후문에 연결되는 47개 통학로 중 출입문에서 100m 이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00m(21.3%), 200m(17.0%) 순이다. 또한 후문과 연결된 7개의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노면표시는 구도심이 신도심보다 많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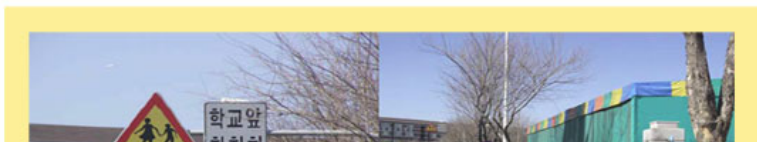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의 문제점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무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과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고 있다

- 학교장들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경우가 많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육이 형식적이다.
- 전체 초등학교의 50%만이 연석과 방호울타리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있을 정도로 안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이미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이 학교의 위치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획일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시설물 중에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거의 대부분의 학교 출입문들이 차로와 바로 접하고 있으며, 특히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등의 4차로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규제하기가 곤란하다.
- 통학로 상에 노상 적치물(전봇대, 쓰레기통, 교통표지판, 불법 적치물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곳이 많다.
- 횡단보도가 어린이들의 이동 동선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곳이 많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의 주 출입구에서 반경 300m 이내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실제 통학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 학교 주변 담장이 주민들의 주차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통학로의 상당 부분이 별도의 속도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거나, 실시하고 있더라도 안전속도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지정된 안전속도(30km/h)를 무시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개선 방안

- 선진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정온화 기법을 도입하여 지금까지의 선적 규제에서 면적 규제로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내용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나아가 교사, 학부모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교통안전교육용 교재를 개발하여 인터넷을 통해 보급해야 한다.
- 통학로 교통사고 피해 실적을 기준으로 상벌제도를 운영하여 학교장들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학교 안전교육 시간 배정 등을 구체화하고,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하거나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강구하여야 한다.
- 학교의 출입문은 이면도로 쪽으로 이전하여 교통규제를 해야 하며, 어린이들이 대로를 횡단하여 통학하지 않도록 학구를 조정해야 한다.
- 각종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표지와 표시, 시설물들은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점부를 비롯하여 구역 내 횡단보도, 교차로, 미끄럼방지시설, 속도제한 등에 특수 칼라포장을 하여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위법사항 단속 등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 도로관리청, 교육청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자료를 특별히 수집하고 관리하여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경찰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의 자격 요건을 갖춘 녹색 어머니회 등이 준 경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의 상·하부 50m이내는 무조건 주·정차를 금지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보·차 공존도로에서도 주·정차를 금지하여야 한다.
-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야 하고, 특히 화물 차량의 장기 주차 및 박차 등은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문제점과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어린이 통학로의 시설물 현황 조사 분석, 선진 외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의 검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방안 등을 연구 범위로 하였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9년 5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아동 안전과 인권

■ 사고에 의한 아동 사망률

○ 통계청이 금년 5월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OECD국가 사고에 의한 아동 사망률(인구 10만명당) 평균은 5.6명, 우리나라는 8.7명으로 스웨덴(2.7명)의 3.2배로 나타났고, 2005년 우리나라의 아동 사고사망 3대 사인은 운수사고(42.7%), 익사(20.0%), 타살(8.7%)순이다. 우리나라의 사고에 의한 아동 사망률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여전히 높은 편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OECD국가 3대 사인: 운수사고(39.6%), 익사(14.9%), 타살(9.7%)

〈표 1〉 OECD국가 사고에 의한 아동 사망률 순위

연도	OECD 평균	1위	2위	3위
'05년	5.6명	멕시코(13.6명)	미국(9.2명)	한국(8.7명)
'91~'95년	10.5명	한국(25.6명)	멕시코(19.8명)	포르투갈(17.8명)

자료: 통계청(2009),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OECD국가 비교

○ 시도별 사고에 의한 아동 사망자 수는 경기도(150), 서울(84), 경남·경북(54)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제주(14), 광주·울산(16), 대전(2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 인천의 '05~'07년 평균 사고에 의한 아동 사망자수는 31명이다. 사고 사망률은 6.3명이며 이중에서 운수사고 사망률은 2.2명으로 나타났다.

〈표 2〉 시도별 사고에 의한 아동 사망자수 및 사망률, 2005~2007년 평균

(단위: 명, 인구 10만명당)

2005~2007년 평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수	사고 사망률	운수사고 사망률
서울	84	5.3	1.9
부산	36	6.5	2.6
대구	23	5.1	1.8
인천	31	6.3	2.2
광주	16	5.5	1.8
대전	22	7.7	3.3
울산	16	7.2	3.9
경기	150	7.0	3.5
강원	31	11.9	6.1
충북	27	10.0	4.2
충남	35	10.2	5.4
전북	32	9.7	4.0
전남	41	12.4	6.2
경북	54	12.2	5.8
경남	54	9.3	3.8
제주	14	12.2	7.4

자료: 통계청(2009),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OECD국가 비교

■ 아동학대 관련 지표

○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방임과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가해지는 중복학대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례유형을 분석한 결과, 2007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5,581건 가운데 방임이 2,107건(3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중복학대 2,087건(37.4%), 정서학대 589건(10.6%), 신체학대 473건(8.5%), 성학대 266건(4.8%), 유기 59건(1.0%)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방임과 중복학대가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방임의 경우 2004년부터 4년 동안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35%이상을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표 3〉 전국의 아동학대 현황

(단위)

연도 유형	2003	2004	2005	2006	2007
신체학대	347(11.9)	364(9.4)	423(9.1)	439(8.4)	473(8.5)
정서학대	207(7.1)	350(9.0)	512(11.1)	604(11.6)	589(10.6)
성 학 대	134(4.6)	177(4.5)	206(4.4)	249(4.8)	266(4.8)
방 임	965(33.0)	1,367(35.1)	1,635(35.3)	2,035(39.1)	2,107(37.7)
유 기	113(3.9)	125(3.2)	147(3.2)	76(1.5)	59(1.0)
중복학대	1,155(39.5)	1,508(38.8)	1,710(36.9)	1,799(34.6)	2,087(37.4)
계	2,921(100.0)	3,891(100.0)	4,633(100.0)	5,202(100.0)	5,581(1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청소년백서.

○ 인천광역시의 아동학대 신고현황은 2007년 기준으로 331건이다. 이 중 정서적 학대는 27명, 신체적 학대는 12명, 성학대14명, 방임 126명이며, 두 가지 유형이상의 복합은 151명으로 가장 발생빈도가 높다.

〈표 4〉 인천의 아동학대 현황

구 분	학 대 유 형						
	계	정서	신체	성	방임	유기	복합
총누계	2,257	151	221	89	667	17	1,112
2000년	26	1	7	1	5	-	12
2001년	140	20	62	5	22	-	31
2002년	181	14	33	2	75	-	57
2003년	254	6	34	11	73	-	130
2004년	353	15	15	8	90	4	221
2005년	378	27	20	20	96	6	209
2006년	380	28	33	21	121	5	172
2007년	331	27	12	14	126	1	151

자료: 인천광역시(2008), 시정백서.

★ 참고문헌

인천광역시(2008), 시정백서.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청소년백서.

통계청(2009),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OECD국가 비교.

통계청이 금년 5월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OECD국가 사고에 의한 아동 사망률(인구 10만명당) 평균은 5.6명, 우리나라는 8.7명으로 스웨덴(2.7명)의 3.2배로 나타났고, 2005년 우리나라의 아동 사고사망 3대 사인은 운수사고(42.7%), 익사(20.0%), 타살(8.7%)순이다. 우리나라의 사고에 의한 아동 사망률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여전히 높은 편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